

석불선양회 새해 첫 순례법회

한국석불선양회(회장 이귀인)는 6일 충남 서산 일대에서 새해 첫 순례법회를 봉행(사진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92명 회원은 백제의 미소로 널리 알려진 서산 마애삼존불(국보 제 84호)과 보원사지(사적 제316호)를 비롯하여 5층 석탑, 법인국사 부도, 당간지주 등을 보며 신심을 다졌다. 특히 한국석불선양회는 서산 마애삼존불 앞에서 '월드컵 성공 개최와 경제 회복'을 기원하는 법회를 봉행했다. 이어 오후에는 아미타삼존불이 봉안된 개심사를 방문, 도공스님의 법문을 청해 들었다.

한편 한국석불선양회는 2월 3일 충북 옥천 용암사에서 마애불 친견법회를 실시한다. (016)267-7945



금강메아리 북한산 환경감시

서울불교산악회 금강메아리(회장 공형수)는 6일 북한산 일대에서 '사찰 환경 감시' 산행을 실시했다.

이날 산행에서 30여 회원들은 회통사와 원각사를 참배하고, 산악인 불자들이 올해 추진하는 '사찰 환경 및 문화재 보호' 캠페인이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서원했다. 이어 회원들은 북한산 관동도로를 반대하는 농성현장을 방문, 위로금을 전달했다.

금강메아리 허의석 총무는 "산과 불교는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게 산악인 불자들의 생각"이라며 "북한산 관동도로 반대와 같이, 산과 불교를 지키려는 일련의 움직임 하나 하나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02)730-1080



운불련 대구지부 신년하례법회

한국운전자불자연합회 대구지부(회장 김주빈)는 7일 오후 4시 운불련 대구지부 자체법당 해림원에서 신년 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 참석한 80여 회원 및 가족들은 '모든 이를 부처로 보는 하심'을 주제로 한 대승원 주지 설호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올 한 해 동안의 활발한 신행 활동을 서원했다.

대구지부는 이어 운회회의를 열고, 홈페이지 개편 △전국 단위 수련대회 및 체육대회 참여 등을 올 주요 사업으로 결의했다. 이중 홈페이지 개편과 관련해, 대구지부는 현재 지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www.unbullyun.co.kr)를 2월까지 개편해 연합회 차원의 사이버 신행 공간으로 이용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교사 불자는 청소년 포교사”

엄범순 전국교사불자聯 홍보부장

“교사 불자는 청소년 포교사입니다. 청소년들의 초발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사 불자들은 일반 불자보다 더 전문화 된 불교 소양을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전국교사불자연합회가 결성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연합회 홍보부장 엄범순(41·경기도 광주 한사향학교 교사·사진 씨) 그는 우선 청소년 포교를 책임져야 할 교사 불자들이 불교 공부에 열의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19일부터 21일 까지 통도사에서 열리는 연합회의 겨울 수련회에 보다 많은 교사 불자들이 참여해 마음 공부 하도록 독려했다고 말했다.

엄 씨의 독려는, 그가 5일 조계종 포교원 신년하례법회에서 '청소년 포교'의 공로패를 받은 점에서 그렇지만, 지난 10년 동안의 교사 불자들의 모임을 이끌어 남다른 신행활동을 펴 왔다는 점에서 힘을 갖기에 충분하다.

그는 93년 충북 제천에서 장애인 특수학교인 청암학교에 재직하면서 '계천교사불자회'를 결성했는가 하면,



선행단체 담당=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교사불자회관 건립에 최선 다할것

96년과 97년에는 조계종 포교원이 직 지사에서 개최한 교사 불자 연수에 참여했고, 그 인연으로 지금의 전국교사 불자연합회의 전신인 서울·경인교사불자회 창립 멤버이자, 현재 연합회 홍보부장으로 대의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장애인을 가르치는 특수학교에서 10년간 단주를 차고 교단에 섰는데, 한번은 수학여행 때 반 아이들 모두

단주를 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청소년 포교를 진지하게 생각했고, 교사 불자들이 학생들에게 불제자 다운 말과 행동을 보여주면 청소년 포교는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결론을 얻었지요.”

엄 씨가 지난 10년간 읽은 불서의 수는 헤아리기 어렵다. 불교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불서를 손에 넣은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엄 씨에 적잖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엄 씨는 항상 목탁을 들고 다니며 화엄·영인·성공스님 등 엄벌로 유명한 스님들의 엄벌 테이프를 듣는다. 사찰에 가지 않은 일요일 오전 내내 엄벌하는 것은 물론이다.

엄 씨는 “교사 불자들은 항상 공부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며 “연합회의 매 행사는 불교 소양을 더 넓힐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교사 불자들의 좋은 교육의 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엄범순 씨는 “교사 불자들이 법회를 봉하고 참선을 할 수 있는 공간 가정 ‘교사불자회관’을 짓는 게 꿈”이라며 “연합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정동진 ◇이호식 ◇고광선 ◇오희창 ◇장미화

1천원 보시등 이웃돕기 생활화

직장 직능단체들 새해사업 활기

불우이웃돕기의 생활화를 서원하며 임오년 새해를 시작한 직장직능단체들이 화제다.

매일 1천원 보시를 약속한 철도청불교협의회와 성북구청불자회, 지회마다 재소자 가정이나 복지시설 한 곳을 선정해 결연을 맺기로 한 전국교정인물자연합회, 매달 자신의 시간과 돈 5%를 봉사금으로 적립하는 도봉경찰서 경찰불교회 등이 그들이다.

지난해 송년모임에서 신행하는 철도인 불자들의 연합회로 거듭나자는 데 공의를 모은 철불협(의장 정동진)은 올해부터 '2002 철마는 자비를 신'고' 라는 보시 캠페인을 전개한다. 매월 월급에서 1천원을 봉사금으로 자동 적립하는 이 캠페인에는 철불협 회원 5백여 명 외에도 가족들이 참여

할 예정이다.

성북구청불자회(회장 이호식)와 도봉경찰서 경찰불교회(회장 고광선) 역시 매달 후원금을 적립한다. 올해 처음 '매달 1천원 보시' 프로그램을 시작한 성북구청불자회 40여 회원들은 적은 돈이지만 보시 프로그램이 정착되는 대로 후원금을 늘린다는 방침도 세웠다. 지난해부터 'Give 5%'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도봉경찰서 경찰불교회는 올해부터 회원들의 정기적인 보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국교정인물자연합회(회장 오희창)는 올해부터 '지회 1복지시설 및 1재소자가정 결연 맺기' 캠페인을 펼친다. 신행하는 불자 교정인상을 세우는 취지에서 시작되는 이번 캠페인에는 연합회 신하 40여 지회에서 참여한다. 캠페인은 분기별로 봉사하는 게 아닌 매달 관할 지역의 복지시설이나 재소자 가정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

연꽃심기 춘천 축제

시청도반회 2002캠페인 전개

“호반의 도시 춘천에 연꽃 군락지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이곳의 불심 또한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18일로 창립 첫 돌을 맞는 새내기 불자회 춘천시청도반회(회장 정상형·지적과장)가 '2002 연꽃심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 캠페인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활동이 부족한 춘천 불교계가 연꽃심기 축제를 계기로 신행의 활로를 찾을 수 있게 하자는 도반회의 계획에 따라 마련됐다.

“춘천에는 사찰도 불자도 많은데, 두드러진 신행 활동을 찾아보기

관회의 '권선문' 배포로 시작된다. 권선문은 사찰과 신행단체 등에 배포되는데, 도반회는 이미 사찰과 신행단체로부터 '연꽃심기 캠페인'을 적극 돕겠다'는 협조를 얻었다.

도반회는 3월 말까지 연꽃심기 행사에 참여해 희망하는 스님과 불자들의 접수를 받아, 4월 중 시·서 활동이 부족한 춘천 불교계가 연꽃심기 축제를 계기로 신행의 활로를 찾을 수 있게 하자는 도반회의 계획에 따라 마련됐다.

이를 위해 도반회는 관할 행정당에, 두드러진 신행 활동을 찾아보기

15개 사찰·신행단체 공조 공지천 일대등 연근 파종



힘들어 안타까웠다"며 캠페인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 정 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춘천지역 불자들의 신행 활동에 탄력이 붙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도반회는 캠페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삼은사, 부흥사, 정토사, 보타사, 무문사 등 춘천지역 15개 사찰 및 신행단체들과 공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연꽃심기'를 춘천의 대표적 불교축제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꽃심기 캠페인'은 18일 춘천지역 사부대중의 참여를 권유하는 도

용하기를 받았고, 연꽃 식생 가능성 또한 무안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해 확인했다.

연꽃을 파종기로 한 공지천과 수변공원은 춘천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시민 휴식처로, “불교를 상징하는 연꽃이

춘천 곳곳에 피어있으면 일반 시민들에게 불교를 알리는 효과도 클 것”이라는 기대도 모고 있다.

“캠페인 참가자들에게 나눠줄 연꽃의 모종을 마련하기 위해 전남 무안군청, 성남 정토사, 아산 인취사 등과 활발하게 접촉하고 있다”고 밝힌 정상형 회장은 “일회성 캠페인이 아닌 도반회의 연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춘천 불교계가 하나의 태두리 안에서 품돌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011)365-9591

은평구립도서관 직원모집

삼천사·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은 은평구립도서관에서 불심을 갖고 근무할 성실하고 유능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인원	자격요건
행정(일반직)	7급 0명	회계, 재무, 인사, 서무 유경력자(공무원 7급 상당)
행정(사서직)	7급 0명	2급 정사서 - 도서관 관련분야 정규직 8년이상 (공공도서관 경력자 우대) - 공무원 8급이상에 준하는 직급에서 5년이상

▶제출서류

- 이력서 (사전첨부, 2002년 1월까지 이력사항 재제히 기입요망)
- 자기소개서(A4규격 2매 이내)
-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통
- 성적증명서 1통
- 경력증명서 1통(해당기관 발행, 직위/직급 기재)
- 자격증사본 1매(사서 및 전산관련 등)
- 주민등록증·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여 :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수준에 준함

▶공통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자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않은 자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후 2차 면접시험 (2차 면접대상자는 면접일자를 개별 통보함)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접수방법 : 내방접수 및 우편접수

▶접수기간 : 2002. 1. 9.(수) ~ 2002. 1. 26.(토) 오후 2시까지 (우편접수시 마감 당일 오후 5시 도착분에 한함)

▶임용예정 : 2002년 2월중

▶근무처 : 서울 은평구 불광동 산59-32 은평구립도서관

▶접수처 및 문의처 은평구립도서관 총무과
서울 은평구 불광 2동 산59-32 담당자 : 심정희 과장
☎ : (02) 385-1671(구내 202)
홈페이지 : www.eunpyeonglib.seoul.kr

삼천사·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이사장 서성운 합장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형(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혈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땀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형(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역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 때가 되면 끊어질듯 아프며 거기가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약이머 한약도 여러 번 지어먹어 보았지만 사뭇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 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경혈)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만 지나 후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 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밤들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놀라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 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넘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전국 대리점 모집 중

매달되는 증상 () **막심시요**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다
- 7 우울증이 있거나 위축이 있다
-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10 생리때 땀이 끈적하게 땀이 있다
- 11 배나 복부 부종이 심한 편이다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15 전반적으로 활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 16 목이 바르거나 눈이 침침하다
-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 18 담노나 감성적으로 고통을 당한다

CUMIN·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